

# 모든 예술 한데 어우러진 종합문화공간

## 책에 대한 고정관념 깨뜨려준 워싱턴의 서점들

### 하재봉

시인

지난 90년 9월부터 12월까지 워싱턴에 체류하는 동안, 나의 피곤한 영혼을 쉬게 해주던 곳은 서점, 극장, 미술관, 박물관 등이었는데, 이들 문화공간은 대부분 복합적 기능을 갖고 있어서 상이한 예술분야를 한 군데로 끌어모아서 만나게 하는 길트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대부분의 문화공간은, 자체 사업과 연관된 물품을 파는 가게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었는데, 예를들면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샵에서는 각종 전시회의 도록이나 전시작가와 연관된 서적, 그리고 월간잡지와 상업적 예술 상품들을 팔고 있었다. 이러한 샵들은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계산된 길목, 즉 출구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두고 있다.

미국내 다른 지역과 캐나다 등지를 여행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또 하나 나의 시선을 잡았던 것은 어느 샵이든지 반드시 아동용품을 진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에 대한 관심은, 가장 상업적인 곳조차도 비상업적으로 보일 만큼 수준높은 상품들을 갖춘 데서도 드러나듯이 성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어릴 때부터 부모들 손을 잡고 문화공간을 찾게끔 사회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다는 것을 그런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동용 도서의 풍부함과 뛰어난 상상력에 의해 제작된 책들의 아름다움은, 거듭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열악한 현실과 대비되면서 나를 아프게 절렀다.

#### '워크맨족' 위한 오디오북 많아

미국의 출판시장은 워낙 방대한 규모를 갖고 있어서, 대부분의 서점들은 각각 성격에 따라 전문화, 세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적인 베스트셀러가 아니고서는 원하는 책을 구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크게는 분야별로 예술서적, 과학기술서적, 일반대중도서(요리, 건강, 성) 등을 판매하는 서점들로 구분해 볼 수도 있지만, 더 세분화시키면 문학, 미술, 음악, 사진, 공연예술 등만 각각 별도로 취급하는 서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격별로는 아동도서·페미니즘 도서 등만을 취급하는 서점도 꽤 많이 있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왔던 곳은 복합 문화공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서점들이었는데, 워싱턴에 있는 아스트레아(ARSTREA)와 WPA의 북스토어가 그런 곳이고 대형서점으로서 윌슨스북이 있다.

윌슨스 서점은 워싱턴 지역에 5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대형 유통서점으로서 레코드와 CD도 같이 취급하고 있는 곳이다. 대학가인 조지타운, 그리고 시내 중심지역인 듀팡썬 등에 위치하고 있는 윌슨스 서점에는 지난 1929년 뉴욕 증권시장의 폭락을 알리는, 세계적 공황의 시작인 그날의 「뉴욕타임즈」나, 1963년 11월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을 알리는 신문들이 수집가를 위해 진열되고 있기도 한데, 일반 광지에서 파는 복사본과는 달리 이것들은 원본으로서,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역사적 유물들을 매우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다.

또 철지난 각종 연극, 영화, 무용 공연 등의 포스터도 철제 화일에 보관되어 팔리고 있는데, 그중에는 지난 88년 서울올림픽을 비난한 '고문은 올림픽 종목이 아닙니다'라는 포스터도 들어 있었다. 윌슨스 서점이 우리의 종교·교보문고 등의 대형서점과 다른 것은, 종이로 인쇄된 책 뿐만이 아니라, 비디오·오디오 북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인데, 서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오디오 북들은, 워크맨이 일본보다 더 많이 보급되어 있는 이 나라의 특성을 살려 각종 세계 명작들과 대중적인 베스트셀러들이 오디오 테이프와 제작된 채 종이로 만든 책 옆에 진열되어 있었다.

#### '미술적' 인 문화공간 아스트레아

아스트레아는, 백악관 근처의 국립극장 맞은편 길가인 펜실베니아 애브뉴와 13번가가 만나는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독특한 문화공간은 갤러리와 서점, 카페 그리고 영화관과 소극장의 역할을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 속에서도 미술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서 나의 관심을 가장 강하게 끌여당긴 곳이었다. 길 모퉁이 코너이기 때문에 4면중 전면 유리로 만들어진 2면이 거리와 접해 있어서 길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단 유리를 열고 들어가면, 커다란 사각형의 실내에 둥그렇게 원형의 골을 한 서가가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둥근 원의 윗 부분은 천정과 맞닿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고, 그 원 밖은 서가로서 책들이 진열되어 있지만, 원 안에 들어가면 많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어서 갤러리의 역할을 한다. 그 원 부분은, 4방위중 서쪽 방위만 여단이 창문이 있고 다른 3방위에는 커다란 문이 열려 있어 자유롭

#### 요즘같은 대량생산의 시대에

#### 수공업적으로 만들어진 훌륭한

#### 아트북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 상당수의 예술가들이

#### 자신의 작품의 일환으로서

#### 책의 형태를 띤 작품을 시도하고

#### 있었는데,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 상상력이 담긴 그 책들은

#### 만져보기만 해도 즐거울 정도로

####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게 넘나들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원안에서 어떤 행사를 가질 경우 부채처럼 접혀져 있던, 그래서 문이 있는지 알 수조차 없던, 그 문들은 안에서 펼쳐져 나와 입구를 가로막고 또 창문도 부채처럼 펼쳐져 막혀지면서, 원안은 순식간에 완벽한 밀폐의 공간으로 변모해 버린다. 나는 이 미술적인 공간이 너무나 신기하여 도면을 그려오기도 했는데, 문화공간으로서의 아스트레아의 진정한 기능은 그 원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다.

커다란 출입문이 없고 창문만 나있던 서쪽 방위에는, 그러니까 가로가 긴 직사각형 형태의 공간에서 좌측 쪽으로 원의 형태가 들어서 있는데, 사각형과 원의 형태 사이의 삼각주를 카페로 이용하고 있어서 이곳에서는 간단한 차와 빵 종류를 팔고 있다. 그리고 우측의 넓다란 공간에는 서가가 있고 중간에 기다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열람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이러한 공간적 특성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아스트레아는 꼭 책을 많이 팔기 위해 만든 곳은 아닌 것 같았다. 왜냐하면, 책을 파는 것보다는 무슨 책을 진열하여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느냐에 더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곳에 진열된 책들은 거의 대부분 문화예술 관련 도서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 역시 워싱턴 부근에 거주하는 문화 예술인이든지 혹은 문화예술 분야를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문학·미술·공연예술·철학·심리학 등 인문과학과 예술서적들이 빼곡히 꽂혀있는 서

가에서 종일 책을 들여다보아도, 그리고 다리가 아프면 그 커다란 책상에서 책장을 넘겨도, 눈치를 주거나 싫은 기색을 하는 사람이 없다.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심하게 자기 맡은 일을 하는 것 이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서 몇권의 귀중한 비디오 관련 도서와 최근에 발간된 미술서적들을 살 수 있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 큐레이터협회에서 개최한 비디오 전시회 카탈로그나 전위 운동의 하나로서 출발했던 '플래쉬 아트'의 영인본 등이 그것인데, 이런 책들은 다른 서점에서는 찾기 힘든 것들이었다. 또 서가의 한쪽 구석에는 비디오와 오디오 아트를 다룬 것들로서 이것 역시 나의 체험으로는 워싱턴 지역에서는 유일한 이런 성격의 비디오 테이프가 있는 곳이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등을 영화화한 테이프나 혹은 베르히만의 「화니 알렉산더」 오슨 웰스의 「벵베드」 「시민 케인」 등을 이곳에서 살 수 있지만 무엇보다 5,60년대 L.A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여 일어났던 비디오 아트들의 선구적 업적이 담겨진 실험적인 비디오 테이프들이 귀하게 진열되어 있다. 해리 스미스의 「어리 애드스트렉션」 제임스 브루튼의 「꿈나무」 케네스 앵거의 「불의 작업」 「미술의 원」 등이 그것이다. 또 오디오 들은 일본이나 인도, 아프리카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꽤 있어서 회화테이프들도 있는데, 그중에는 한글로 적혀진 회화테이프가 눈에 띄어 가슴 한쪽을 저려오게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스트레아의 가장 큰 매력은, 매일 저녁마다 열리는 퍼포먼스에 있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원형의 소극장 안에는 철제 접철식 의자들이 놓여 있고, 낮에는 벽면에 전시된 그림들과 함께 갤러리의 공간으로 사용되지만 매일 저녁 9시30분이 되면, 천정에 설치된 비디오빔으로 대형 영사막 위에 영화가 상영되어 사람들을 불러모은다. 예술성이 높은 영화들은 4, 5일 정도 계속되기도 하는데, 참고로 9, 10월 그곳에서 상영된 영화들은 빔 벤더스의 「파리, 텍사스」 리히터의 「부카로 반자이의 모험」 장 뤽 고다르의 「주말 장 자끄 드니의 「디바」 등인데, 그외에도 「브라질」 「몇 시간후」 등 주옥 같은 명작들을 나는 그곳에서 볼 수 있었다.

이른 저녁, 대부분 저녁 7시경에는 신간을

퍼낸 저명 작가들을 초청하여 사인회를 갖기도 하는데, 「낙원의 정복」을 출간한 패트릭 세일즈, 「로마에서의 첫번째 남자」를 출간한 콜린 맥콜로우 등이 초청되어 사인회를 갖고 문학 강연을 했었다. 또 1인극이나 시낭송회도 가끔 열리는데, 매월 20일경이면, 서점 카운터 앞에 다음달의 행사를 알리는 유인물이 복사된 채 배포되고 있어서 누구나 그것을 보고 행사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가장 궁금한 것중의 하나는 도대체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젊은 여주인은, 예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렵잡아도 상당한 액수가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되었다.

#### 수공업적으로 제작된 아트북들

아스트레아가 복합적인 예술기능을 갖춘 곳이라면, WPA(예술가를 위한 워싱턴지구)는 매우 뚜렷한 목적을 가진 곳이었다. 1975년 설립된 이 지구는, 7번가와 D St가 만나는 지점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낮은 3층 건물 중에서 지하는 WPA서점, 지상 1, 2층은 전시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층은 사무실로 쓰이고 있다. 워싱턴 지역의 가장 활발한 예술활동의 주축 역할을 하는 이 민간지구는, 1975년 설립된 이래 왕성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전시장에서는 실험적인 미술·사진·비디오 등의 작업이 전시되고 또 각종 퍼포먼스와 콘서트 등이 개최되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는 워싱턴 지역의 예술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특히 중요한 곳은, 지하에 있는 WPA서점으로,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에 소장된 예술도서들은 하나같이 매우 귀한 것들이다. 물론 일반인들이 찾는 베스트셀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이지만, 이곳을 주의깊게 살펴본 사람이라면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놀라운 수준의 도서들이 진열되어 있다. 문학·미술·건축·사진·퍼포먼스 도서들이 대부분인데 특히 놀라운 것은 예술가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한 수준 높은 아트북들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는, 뉴욕이나 보스턴, 시카고,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나 몬트리올까지 해매며 어렵게 산 도서들이, 워싱턴에 돌아와서 이 서점을 찾으면 어딘가 구석에 꽂혀있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두세번은 꼭 이 서점을 들

러야 마음이 놓이곤 했는데, 나는 이곳에서, MOMA에서 퍼낸, 60년대 이후 세계예술의 전위를 담당해온 'FLUXUS' 그룹의 활동사를 정리한 책과 'FLUXUS' 카드, 신문 등을 살 수 있었고, 필라델피아 미술관에서 만든 「마르셀 뒤샹」 그리고 콘크리트 포에트리 시집, 앤솔로지 등과 요셉 보이스가 만든 아트북들을 구할 수 있었다.

특히 아트북들은,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났을 옹고 구경하게 만들었는데, 대량생산의 시대에 이렇게 수공업적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의 일환으로서 책의 형태를 띤 작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에게서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 아트북들은 각각 매우 기묘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예술가들의 독창적인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책들을 만져보는 것만 해도 나는 큰 즐거움을 가졌었다. 물론, 가격은 일반 도서들의 몇배에 해당될 만큼 비쌌지만, 그곳에서 나는 책에 대한 지난 수십년 동안의 나의 고정관념을 부숴버릴 수가 있었다.

책은, 꼭 종이위에 인쇄되어 제본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셀로판·나무·비닐·성냥갑 등을 가지고도 책을 만들 수가 있다. 종이로 만든 책들도, 그 사이에 다른 재료를 첨가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꼴을 갖출 수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들은 물론 손이 많이 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껴졌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의 여기저기 널린 것들이 바로 책이었다.

나는 또 몇권의 진기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그것들은 상자형으로 된 책들로서 상자의 뚜껑을 열면 잡다한 인쇄물, 브러쉬어 같은 안내문, 캐탈로그, 그리고 작가의 브로마이드 사진과 전시사진 등이 혼연일체를 이루어 한편의 종합적인 책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옥타비오 빠스가 서문을 쓴 「멕시코: 죽음의 날들」과 물질 그룹이 1987년 10월 필라델피아의 템플 갤러리에서 가진 전시회를 수록한 책, 그리고 크리스찬 볼란스키의 아트북 등이 내가 구입한 것들인데, 우리 출판계도 기존의 대량생산-공급의 획일적인 라인을 벗어나서 각종 아트북이나 상자형 책의 가능성을 모색해 볼 단계가 아닌가 한다.

# 집을 지어드립니다



1987년부터

## 책

27명의 전문가들이

대패질도 하고 톱질, 망치질에 곡괭이, 삽, 도끼 등을 동원하여

## 책

그 정신의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에서 설계도면까지는 잘 나가다가도, 지붕의 모양새 때문에 서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일이 틀어져서 서로 얼굴도 마주하지 않을 것처럼 고집들을 부리기도 하지만, 상량식을 하고 고사상을 앞에 놓고는 길길거리며 어깨동무도 합니다.

## 책

우리들 삶의 목표가 책 그 자체는 아니지만 책을 깔고 다듬고 새기며 칠하고 묶어내는 일을 통해 우리들 각자의 삶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곳 바른글방에 모여 있습니다.

출·판·전·문·집·단



종로3가 피카디리 극장 옆 초동빌딩 202호  
전화 764·4241(대) / 764·4240 / 766·1947  
FAX 744·9209

**출판전문집단** 바른글방 사람들은 책에 관한 모든 일들을 거뜬히, 믿음직스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의 편집 및 교정은 물론, 책의 기획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표지·본문·출판광고 디자인과 전산·수동 입·출력, 그리고 제작전반에 이르기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솜씨로 대항해 드립니다.

**바른글방**에서는 이를 위해, 미려한 서체의 최신기종인 전산사식 편집·입력기 15대와 레이저 교정지 출력기·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를 자체보유하고 있으며, 일반 퍼스컴이나 워드프로세서로 입력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를 위한 수동사식기와 중국어 간체자 자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